

# 해남, 전국 최대 농업연구단지 조성한다

### 국립 기후변화대응센터 예정 부지 삼산면 일대 60ha 규모

### 전남 과수연구소·해남군 농업연구단지 등 집적화

해남군이 국립 기후변화대응센터가 들어서는 삼산면 평활리 일원을 농업분야 기후변화대응의 메카로 조성한다.

군은 국립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에 맞춰 약 60ha 규모의 전국 최대규모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에는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와 전라남도 과수연구소(25ha), 군 농업연구단지(30ha)가 들어선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기에 통과한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는 올해 토지 보상비와 기본 설계비를 확보한 가운데 하반기에는 농식품부의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대응센터의 세부 역할과 건축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는 우리나라 농업분야 기후변화대응의 본부로서 전국 도 단위 농업기술원을 지역센터로 활용해 기후와 밀접한 농업분야의 기후변화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2026년 운영을 목표로 내년 설계 용역에 착수해 하반기 착

수해 2024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이다.

해남군에서 조성하는 농업연구단지에는 고구마 연구센터, 청년농업인 임대농장,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등 앞으로 해남의 미래농업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기반이 구축된다.

지난해 9월 군 관리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각 분야 전문가와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단지 구성을 통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다음달 입안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군 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고 2024년 상반기 실시계획 완료 및 착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맹현관 군수는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해남유치 이후 해남을 농업분야 기후변화대응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한 전략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며 “민선8기 농업연구단지 조성 등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완료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해남=김동주 기자

## 스벤 올링 주한 덴마크 대사, 영광군 방문

### 신재생에너지 협력 방안·우호교류 활성화 논의

영광군은 26일 스벤 올링(Svend Oling) 신임 주한 덴마크 대사 일행이 해상풍력 발전 산업 협력 및 우호교류 증진을 위해 영광군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담에서는 영광군-덴마크 간 해상풍력 협력 방안 도출 및 대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해상풍력 선도 기업 CIP/COP 소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전반에 대한 소개와 해상풍력 발전단지 추진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오늘의 만남을 계기로 영광군과 덴마크 간 상호 교류협력 강화에 대하여 논의하며, 영광군이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향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스벤 올링 대사는 “강종만



영광군수님의 환대에 감사드리며, 영광군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전을 높게 평가하며, 영광군 해상풍력 발전 산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COP 코리아 이범주 전무는 “COP가 보유한 해상풍력 분야의 풍부한 투자재원과 전문기술이 영광군 해상풍력 개발사업에 적용돼 해상풍력 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광=서종민 기자

## 7월 ‘광양야경시티투어’

### 주말 금~일요일 상시 운영

광양시가 7월 한 달간 주말(금~일요일) 오후 3시, 순천만국가정원에 예약 없이 탑승할 수 있는 특별한 광양야경시티투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야경시티투어는 순천만국가정원(오후 3시), 광양읍 버스터미널(오후 3시 30분)에서 탑승해 시원한 광양와 인동굴에서 낭만을 즐기고 광양불교기후거리에서 저녁을 먹는다. 이어 구룡산전망대, 이순신대교, 해오름육교 등 은은한 광양만의 야경에 빠지고 광양읍 버스터미널(저녁 9시), 순천만국가정원(저녁 9시 30분)에서 일정을 마무리한다.

수요일에는 광양의 정신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역사코스를 마련해 선택권을 늘리고, 야경과 역사 중 예약 현황 등 운영 요건을 먼저 충족한 데 바로 운영할 계획이다.

역사코스는 순천역(10시 10분), 광양읍터미널(10시 45분)에서 탑승해 전남도립미술관, 광양예술창고, 인사리공원, 광양역사문화관, 광양장도박물관, 광양공시전수교육관 등을 탐방하고 광양읍터미널(오후 5시 5분)을 경유해 순천역(오후 5시 40분)에 도착한다. 그 밖에 15인 이상 단체가 자유로 코스로 단독 투어를 떠날 수 있는 월, 화, 목 단체코스도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 이병용 함평군 부군수

###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기탁



이병용 함평군 부군수가 이달 말 임기를 마치고 함평군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한도액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부군수는 1986년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전남도청 회계과, 총무과, 기획관실 등 주요 요직을 거쳐 지난해 1월 제29대 함평군 부군수로 부임했다.

재임 기간 이 부군수는 농촌협약 신규사업, 농촌공간 정비사업 등 각종 공모 선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정부, 전남도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톡톡히 하며 함평군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병용 부군수는 “그간의 여정을 함께했던 함평군 동료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했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모두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은희 기자

## 영암, 치매전담요양원 도시근교형으로 가닥

###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열고 기본계획 마련해 설립키로

영암군이 100여 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근교형 치매전담요양원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영암군은 ‘치매전담요양원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영암군은 이날 최종보고회와 토론회를 바탕으로 도시형과 전원형을 절충한 치매전담요양원을 건립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영암군은 ‘치매전담요양원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6월 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전문 용역업체가 지역 환경분석, 부지 적정성 검토, 관련 부서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영암군치매전담요양원 건립의 타당성을 살피도록 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업체는 설립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우승희 영

암군수와 관련 부서 담당자 등에게 알리고, 그 연구결과를 공유했다.

이어 치매전담요양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이는 앞으로 기본계획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최적화된 노인 복지 인프라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치매환자와 보호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영암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영암=김형두 기자

## 완도, 국제 슬로시티 우수 사례 콘테스트 ‘최고상’ 수상

### 삶의 질 높이기 위한 도시 정책 ‘해양치유’ 높이 평가받아



완도군이 지난 24일 이탈리아 파르마에서 열린 ‘2023 국제 슬로시티 연맹 총회’의 국제 슬로시티 우수 사례 콘테스트에서 최고상인 ‘오렌지 달팽이 상(Chiocciola Orange 2023)’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오렌지 달팽이 상’은 국제 슬로시티 연맹 33개국 288개 도시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슬로시티 정신을 잘 실천한 도시에

수여하는 최고상이다. 완도군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시 정책’ 부문에 완도의 해양환경과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 정책으로 공모에 참여했다.

완도군의 지역 특화 산업인 ‘해양치유’는 현재와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지역의 생산 활동, 관광 발전 등 지속 가능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최고점을 받았다. ‘해양치유’란 깨끗한 해양환경 속

에서 해양기후와 해풍, 바닷물 등 해양자원을 이용해 심신을 치유하는 건강 증진 활동으로 완도군은 국민 건강을 선도함은 물론 많은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위해 해양치유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군은 청정한 대기질, 깨끗한 바닷물, 다양한 해양생물 생산 등 해양치유 산업의 최적으로 평가받아 2017년에는 선도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노르딕워킹과 해변 명상, 필라테스 등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16개의 치유 요법 시설을 갖춘 해양치유센터와 더불어 기후치유, 문화치유센터 등 공공시설이 그랜드 오픈할 예정이다.

신우철 군수는 “앞으로도 슬로시티 정신인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여 우리 군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슬로시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완도=이두성 기자

## 순천 ‘경영실습 임대농장’ 공모사업 추가 선정

### 청년 농업인 스마트농업 기술 습득 기회 토대 마련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 공모에 순천시 2곳이 선정됐다.

순천시는 26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상지로 선정되어 총 2개소에 국비 6억여 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스마트농업 창업에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설(온실) 임대를 통해 농산물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경영 과정을 체험하여 창업 후 실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총사업비 8억 5천8백5십만원(국비 70%, 지방비 30%)을 투입하여 승주읍 서평리 일원에 약 4,000㎡ 규모의 스마트 온실 2개소를 열

려 말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청년 농업인이 초기 투자비용의 부담 없이 영농기반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순천시가 명실상부한 스마트농업 진주 기지로서 역할을 확대해 갈 수 있도록 농업 분야에 대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경영실습 임대농장 뿐만 아니라 농업계학교 스마트팜 실습장 지원사업 등을 통해 농업 혁신을 선도할 미래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으며, 2024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순천=조순희 기자

## 신안, 국제슬로시티 연맹 초청 총회 참석

### 박우량 군수 “슬로시티 국제 연대 통한 비전과 실천 이행”



신안군은 지난 25일 슬로시티 신안을 알리기 위해 2023년 국제 슬로시티 연맹 초청으로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군수는 이날 오전부터 이탈리아 파르마에서 국제 슬로시티 대표자들과 만나 슬로시티 발전 방향과 이념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안군은 국제 슬로시티 연맹으로부터 2007년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 지정된 이후 이념에 따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친환경 사업과 군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2022년 5년마다 진행되는 재인증 평가를 거쳐 2023년 6월 재인증 승인을 국제연맹으로부터 받았다.

이번 방문은 세계적인 슬로시티 신안 활성화에 발판이 될 것이며, 코로나19 등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슬로시티의 활동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박우량 군수는 “슬로시티 신안은 천혜의 자연적인 신안군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총회 참석으로 국제 슬로시티 연대로써 군민의 삶의 질과 행복 향상을 위한 비전과 실천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안=박정래 기자

## 장성 삼서면에 농어촌 공중목욕탕 건립 추진

장성군이 삼서면에 농어촌 공중목욕탕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잔디 재배 농가가 많은 삼서면은 일과 후 목욕이 필요함에도 마땅한 시설이 없어 목욕을 하려면 삼서면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삼서면 전체 인구의 38%가 고령 주민이다 보니 이 또한 만만치 않다.

이에 삼서면 주민자치회·이장협의회 요청사항을 취합한 장성군이 전라남도에 수차례 건의한 끝에, 올해 공중목욕탕 신축사업 대상지로

단독 확정되는 성과를 냈다.

도비 약 2억 원을 확보한 장성군은 삼서면 다목적센터 앞 광장부지(대곡리 929-2)에 330㎡ 규모 농어촌 공중목욕탕을 건립하기로 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준공 시기는 2025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공중목욕탕이 완공되면 다목적센터, 파크골프장과 인접해 삼서면의 건강증진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면 소재지 활성화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성=심재식 기자

## 광양5일시장, 아리아리 플리마켓 ‘아이들 놀이터로 변신’

### 버스킹 공연·액세서리 만들기·장기자랑 등 풍성한 행사

광양5일시장 문화관광형육성사업단은 상인들이 자리를 비운 시장을 소규모 마켓이자 아이들의 놀이터인 ‘아리아리 플리마켓’으로 지난 24일 운영했다고 밝혔다.

아리아리 플리마켓은 가족 단위 고객 유입과 시장 내 유휴공간 활용을 위해 인지도 높은 지역 셀러협동조합과 협업하여 다양한 수공예품과 액세서리, 먹거리 등 지역 셀러들의 판매의 장이 됐다.

지난해 처음 시작된 아리아리 플리마켓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셀러들이 손수 만든 수공예품 판매 등으로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는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 연계로 전통시장을 시민들의 문화생활 공간으로 확대 운영한다.

장성근 단장은 “젊은 층과 미래 고

객층인 아이들의 시장 방문을 위해 전통시장을 문화생활공간으로 감각 변신시켰다”며 “성인 문화강좌인 해누리 클래스와 아이들을 위한 키즈마켓데이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레크리에이션 △버스킹 공연 △어린이 장기자랑 △캐릭터 우즈마카 체험 등 부대행사와

△선착순 마켓 이용 쿠폰 증정 △온누리상품권 추첨 △구매고객 경품 추첨 등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를 통해 전통시장 재방문을 꾀했다.

한편, 광양5일시장 아리아리 플리마켓은 6월에 이어 오는 7월과 10월 마켓이 되지 않는 셋째 주 토요일에 미니 수영장 운영 등 월별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방문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광양=조순희 기자

